

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 · 인프라 동향 보고(1.23)

1.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

○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Source: <https://www.bb.org.bd/en/index.php/econdata/index>

구 분	내 용	비 고
은행간 환율	110.00 Tk/USD (전주대비 0.00△)	'24.01.23 기준
기준금리	4% 유지	'23.12월 기준
월평균 시중금리	8.84% (전월대비 0.81△)	'23.12월 기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4년 01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현지화 10년물 8.505%)

▼ 8.505 -0.00 -0.00%

출처: <http://www.worldgovernmentbonds.com/bond-historical-data/bangladesh/10-years/>

Yield changed +369.5 bp during last week, +369.5 bp during last month, +369.5 bp during last year.

Current Yield reached its **1 year maximum value**

Period	Change	Min	Range	Max
1 Week	+369.5 bp	8.505 % Jan 16, 2024		12.200 % Jan 23, 2024
1 Month	+369.5 bp	8.505 % Dec 23, 2023		12.200 % Jan 23, 2024
6 Months	+369.5 bp	8.505 % Jul 23, 2023		12.200 % Jan 23, 2024
1 Year	+369.5 bp	8.450 % Jan 24, 2023		12.200 % Jan 23, 2024

Current Yield: 12.200%
Last update: 23 Jan 2024 0:15 GMT+0

□ 방글라데시의 외채상환액, 3년 내 63% 증가 예상

- 정부의 외채 상환액은 2025-2026 회계연도까지 지난 회계연도보다 63퍼센트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외국인 대출금의 지출과 그들에 대한 이자 지불의 급증은 채무 상환 요건을 높이고 있음.
- 재무부 전망에 따르면 2025~2026년 이자를 포함한 외채 상환액은 4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지난 회계연도에 정부는 27억 6천만 달러를 상환.

- 현재 회계연도인 2023-24년에는 상환액이 예산 목표치인 27.9억 달러를 초과하여 35.7억 달러로 33.52% 급증할 것으로 예상. 방글라데시는 FY23-24의 첫 5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51.36% 증가한 13.3억 달러를 상환. 이 중 이자 상환액은 136.70% 급증한 5억 6,200만 달러를 기록. 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2024-2025년에 41.8억 달러의 외부 대출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
- 방글라데시의 외채 잔액은 지난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623억 1천만 달러에 달함.
- 방글라데시는 대출의 59%를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간 채권단에 맡기고 있으며 나머지는 양자간 대출기관에 갚아야 함.
- 다카 도시철도, 마타바리 석탄발전소, 룩푸르 원전 등 초대형 프로젝트의 자금 방출은 최근 들어 그 시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증가.

□ 국외 거주자 외환송금, 24년 첫 19일 동안 13억 6천만 달러

- 방글라데시 은행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9일까지 해외 은행 채널을 통해 13억6천만 달러, 약 1천500억 Taka 유입.
- 송금액은 2022년 213억 3천만 달러에서 2023년 219억 9천만 달러로 약 3% 증가. 송금 유입액은 2021년 220억 7천만 달러, 2020년 217억 3천만 달러, 2019년 183억 3천만 달러였음.
-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12월에 외국인이 19억 9천만 달러를 송금 하면서 송금 유입액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그 이전인 지난해 6월에는 송금액이 21억 9천만 달러에 달했음.

□ 2023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36% 감소

- 방글라데시는 7~9월 총 FDI 9억1300만 달러 수취, 2022년 같은 기간 14억3000만 달러보다 감소.
- 미국 달러화 금리 상승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3년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국내 유입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

- 또한, 순투자액은 11억 달러에서 6억 7천만 달러로 급감.
- 2023년 1~9월 FDI 흐름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28억 달러를 기록. 이는 최근 2년간 타카 대비 미 달러화 가치가 약 30% 절상된 데 따른 것.

2. 건설 · 인프라 시장 동향

□ 최고위급 PPP 회의, 20개 프로젝트의 장애물 해결 노력

- PPP 고위 관계자들은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 진행중인 각종 PPP 사업에 대한 산적인 현안 논의. 이날 회의는 모하마드 토파젤 호세인 미아 총리 겸 PPP 위원장이 주재. RHD, BBA, BR, RAJUK, BEZA, CWASA, CPA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
- PPP사업평가위원회 간사급 위원들은 다카고가고속도로 등 현재 진행 중인 20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과제들을 분석하기 위해 PPP 사무실에서 모임. 일요일(1.21) 논의에서는 미르샤라이 산업단지에 대한 상수도 공급, 가격 담합, 다카 우회도로 등의 문제도 다루었음.
- 다카남부(DSCC)시청은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PPP 사업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며 PPP사업에 대한 협력을 유보. 그러나 총리는 이전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한 바 있음.
- 미르샤라이 경제지구는 인근 지역에 대체 공급원이 없어 메그나강 수계를 취수기로 함. 메그나강 수계의 원활한 취수원 확보를 위해 CWASA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
- 본 회의의 목적은 사업계획 대비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이행을 방해하는 장애요인과 과제를 파악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이행 가속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 중국, IFC, 방글라데시 투자 활성화 촉구

- 중국 대사는 총리실장 (토파즐 호사인 미아)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준 방글라데시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방글라데시의 여러 부문에서 새 정부와 협력할 것을 다짐. *중국대사 면담 자리에서 IFC CD에게 전화를 건 상황
- PM의 수석비서관은 별도 회의에서 IFC 방글라데시 CD(마틴 홀트만)에게 방글라데시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를 늘릴 것을 요청하고, 방글라데시 정부가 제안한 '국가 물류 개발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 IFC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
- 또한 방글라데시의 하천 접근성 확대와 항만·제티 건설 등에 IFC의 협조를 요청.
- 홀트만 IFC CD(Country Director)는 방글라데시 주택 부문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대출 제공에 관심을 표명.

□ 중국 개발원조 확대를 위한 절차 간소화

- 신임 재무장관(아불 하산 마흐무드 알리)은 방글라데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중국 개발원조가 전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발표.
- 장관은 "중국은 인프라개발 프로젝트들에 전념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자금 조달 양허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라고 발표. 중국 대사는 방글라데시의 새로운 정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였음.
- 대사는 또 새 정부 하에서 중국의 방글라데시와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성장할 것이며 방글라데시가 중국과의 양자 관계 증진에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

□ NDB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다카방문

- 블라디미르 카즈베코프 부총재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단장으로 하는 신개발은행(NDB) 고위급 대표단 7명은 현재 21~23일 방글라

데시를 방문 중, NDB 부총재는 지난 1월 21일 ERD에서 재무장관과 면담 실시.

- 면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카에 새로운 상수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카와 나라양간지의 노후화된 가스 네트워크를 교체하는 것을 논의.
- 주로 교통,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 물 및 위생, 관광 등 다양하고 생산적인 분야에 걸쳐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는 데 논의가 집중.

□ 마타바리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시험 가동

- 가스전기 동시 위기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마타바리 석탄 화력 발전소 (1,200MW) 2호기 시험 가동.
- 방글라데시 석탄발전회사(CPGCL)의 아불 칼람 아자드 상무는 22일 기자와 만나 "지난 1월 18일부터 시험 가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2호기가 400MW급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오는 3월 콕스바자르 지역의 모하쉬칼리 섬에 위치한 발전소 2호기의 상업운전일(COD)을 기대중.
- 1호기 (약 600MW)에서 12월 26일에 상업용 전력 생산을 시작했으나, BPDB는 현재 1호기는 폐쇄된 상태임.

3.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

□ 법무부 장관, 총선관련 외교위기 가능성 일축

- 아니술 후크 법무부 장관은 22일 기준, 전국적인 여론조사에 따른 외교적 위기는 없으며 이와 관련해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도 없다고 위기가가능성 일축함.
- 그는 일부 국가와의 외교적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총선 이후) 국가에 외교적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셨지만, 여러분이 보셨듯이 총선 이후에도 그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

□ 인도, 방글라데시 국민이 아닌 AL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함

- 루홀 카비르 리즈비 BNP 수석합동사무총장은 24일 아와미리그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가 방글라데시의 국내 정치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난.
- 인도는 아와미 연맹과의 유대가 깊으나, 방글라데시 국민들과는 관계가 넓지 않으며, 인도가 아와미 연맹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의 미래와 정치적 진로에 과도하게 간섭함으로써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투표권을 잃었다고 지적.
- 그는 "우리의 운동은 부패한 아와미 과두정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빼앗긴 투표권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임.

□ BNP, 1월 26일 거리 시위

- 올해 1월 7일 총선후, 야당(BNP) 주도의 정부 퇴진 요구 거리 시위 발생했으나, 총선전 하탈과 같은 과격한 행위의 시위는 더 이상 없음.
- BNP 수석합동사무총장(루홀 카비르 리즈비)은 "2023년 중반 이후 체포된 정치범 2만7000명 전원의 석방과 모든 허위 사건의 철회 및 불법 의회의 무효화 요구와 함께 규제 없는 상품 가격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검은 깃발을 든 행렬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